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3월 17일

CUOMO 주지사, 세금 상습 체납 운전자 면허 정지 활동의 초기 결과를 발표하다

9,000 명에 달하는 세금 회피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회수된 세금 5,600 만 달러가 예상액을 34% 까지 초과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8,900명의 뉴욕주민이 뉴욕주에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를 정지당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중 단속은 지난 해 체납세금이 10,000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조세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에 입법부가 서명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세금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전달되어 수 천 명이 제자리를 찾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운전면허를 잃을 것입니다."

"운전면허는 권리가 아닌 특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들이 내야 할 빚을 무시하고 있는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뜻밖의 행동을 신속히 이끌어내었습니다"라고 Thomas H. Mattox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셨고 세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저희와 함께 빚을 갚을 납부 계획을 짰습니다. 계속해서 체납 세금을 무시하는 분들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통지 때 2013년 8월부터 17,700여명의 운전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8,900건의 면허 정지와 함께 6,500명의 체납자들이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기 시작했고, 2,300명은 면허 정지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징수액이 주 및 주 단위로 거의 5,64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고 예상금 4,200만 달러보다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른 수 천 명의 체납자들에게 통지가 이뤄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의 징수 세금은 매년 수 백만 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Korean

운전자가 조세부로부터 운전면허 정지를 통지 받을 경우 우편발송일로부터 60일 동안 납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가 추가 15일의 답변 기한을 주는 2차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세금 체납자가 또 다시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DMV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 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합니다.

운전면허 중지가 발효되는 동안 운전하는 납세자는 체포 및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정지자는 출퇴근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세금의 96%를 납세 의무를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상공인과 개인을 통해서 거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4%는 조세부의 감사, 징수 및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징수됩니다. 조세부는 운전면허 중지와 같은 법집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공정한 조세 관리를 집행합니다.

조세부에 문의하려면

- www.tax.ny.gov을 방문하십시오
- 체납 세금을 해결하거나 납부 계획을 마련하려면 (518) 862-6000으로 문의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